랩 위드의 기술사업화 인사이트

2026.09.09 (수) | 오늘의 주제

[기술이전 시리즈 ①편] 남의 특허로 사업하는 법

1. 오늘의 기술사업화 뉴스

- (R&D 지원 동향) 대학·출연연 등 63 개 공공기관이 갖고 있던 미활용 특허·실용신안 **2,925 건**을 국내 기업에 무료 또는 소액으로 넘기는 통합 안내가 나왔습니다. 여기에 더해 한국전력공사·한국수력원자력·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10 곳이 보유한 특허 **638 건**도 오늘부터 10 월 19 일까지 국가기술은행(NTB)에서 신청받습니다. 국내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·중견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*〈출처: 와우테일, 2026.09.07〉*
- (기술사업화 동향) 서울대학교기술지주가 9 월 17 일 '글로벌 대학 벤처 포럼(GUVF)'을 엽니다. 서울대뿐 아니라 칭화대·홍콩과학기술대·도쿄대 등 아시아 주요 대학의 투자기관이 참여해,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한 11 개 기업의 IR 발표와 1:1 투자 미팅이 함께 열립니다. **대학의 기술이전이 곧 창업과 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흐름**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. *〈출처: 스타트업레시피, 2026.09.08〉*
- (기술이전 동향) 국내 바이오텍의 기술이전(라이선스아웃) 계약에서 선급금 비중이 작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2026 년 상반기 국내 바이오 라이선스 거래 8 건의 전체 계약 규모는 94 억 달러였지만, 계약 즉시 받는 선급금은 약 2 억 2,500 만 달러(2,672 억 원)에 그쳤습니다. **대가의 대부분이 임상 성과에 따라 나눠 받는 마일스톤으로 짜여 있다는 뜻**입니다. 유한양행이 2015 년 제노스코에서 라이선스인한 렉라자가 2018 년 얀센에 재이전된 뒤 지금도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같은 구조입니다. *〈출처: 이투데이, 2026.09.09〉*
- (투자 동향) 미국 벤처캐피털 a16z 가 반도체·데이터센터·로보틱스 등 AI 하드웨어 인프라에 투자할 **11 억 달러(약 1 조 4,900 억 원)** 규모의 '머신 에이지 펀드'를 새로 조성했습니다. a16z 는 지난 6 월 서울 사무소를 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투자를 넓히고 있어, 국내 딥테크·하드웨어 기업에도 접점이 될 수 있습니다. *〈출처: 스타트업레시피, 2026.09.09〉*

※ 오늘부터 '기술이전' 시리즈를 시작합니다. 다음 편에서는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조항들을 다루겠습니다.

2. 오늘의 한 조각 _ 남의 특허로 사업하는 법

[기술이전 시리즈 ①편]

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. 기술사업화는 반드시 대표님 회사가 처음부터 개발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. **이미 완성된 남의 특허를 사들이거나 빌려서(라이선스) 사업화하는 것**도 엄연한 기술사업화 전략입니다. 자체 개발에만 매달리다 시장 진입 시기를 놓치는 경우보다, 검증된 기술을 가져와 빠르게 제품을 내놓는 쪽이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.

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큰 성과가 나옵니다

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'렉라자(레이저티닙)'가 좋은 예입니다. 이 후보물질은 2015 년 국내 바이오벤처 제노스코가 개발했습니다. 유한양행은 이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**라이선스인(남의 특허를 사들이는 것)** 방식으로 들여왔습니다. 이후 2018 년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 다시 기술을 넘기는 **재기술이전** 계약을 맺었고, 2024 년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아 지금도 마일스톤(단계별 기술료)이 유한양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. **처음부터 렉라자를 자체 개발했다면 지금의 성과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.**

남의 특허를 가져오는 세 가지 경로

어디서,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가져올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.

경로	무엇인가	대가
공공기술이전	대학·출연연·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특허를 국가기술은행(NTB)에서 찾아 가져오는 방식	무상 또는 소액 정액기술료
민간 라이선스	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실시권 계약으로 빌려 쓰는 방식	정액기술료 + 로열티(매출의 일정 비율)
공동개발 후 확보	공동연구를 하면서 성과물의 실시권이나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	계약에 따라 무상 실시권 또는 지분

오늘 마침 좋은 사례가 열렸습니다. 한국전력공사·한국수력원자력·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10 곳이 보유한 특허 **638 건**을 중소·중견기업에 **무상으로 넘기는** '기술나눔'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. 여기에 대학·출연연 등 63 개 기관이 내놓은 미활용 특허 **2,925 건**도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 IP-Market 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**지금 이 순간에도 3,500 건이 넘는 검증된 특허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.**

특허를 가져오기로 했다면, 계약서에서 반드시 볼 다섯 가지

좋은 특허를 찾는 것과,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.

조건	쉬운 말	확인할 점
실시권 종류	특허를 쓸 수 있는 권리의 범위	전용실시권(나만 쓸 수 있음)인지 통상실시권(여러 곳이 함께 쓸 수 있음)인지
실시 범위	어디서, 어느 분야에 쓸 수 있는가	국내로 한정되는지, 특정 제품군에만 한정되는지
대가 지급 방식	기술을 쓰는 값을 어떻게 치르는가	계약 시 한 번 내는 정액기술료, 매출에 따라 내는 로열티, 성과 단계마다 내는 마일스톤 중 어떤 조합인지
계약 기간	언제까지 쓸 수 있는가	특허 존속기간과 같은지, 중도 해지 조건은 무엇인지
개량기술 귀속	내가 개선하면 그 개선분은 누구 것인가	원권리자와 나눠 갖는지, 온전히 내 몫인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

1. **국가기술은행(NTB)·IP-Market 에서 우리 분야 특허부터 검색해 보십시오.** 지금 무상·소액으로 풀린 3,500 건 넘는 특허 목록이 그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.
2. **후보 특허가 나오면 실시권 종류와 대가 지급 방식부터 확인하십시오.** 전용인지 통상인지, 로열티율은 얼마인지가 사업성을 가릅니다.
3. **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개량기술 귀속 조항을 꼭 확인하십시오.** 여기서 협의가 부족하면 나중에 내가 개선한 기술의 권리마저 분쟁거리가 됩니다.

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기술사업화의 첫 질문은 '무엇을 개발할까'가 아니라 **'이미 있는 것 중에 무엇을 가져올까'**여야 할 때가 많습니다. 다음 편에서는 실제 계약서에서 대표님이 부딪히게 될 조항들을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.

※ 출처: 와우테일 2026.09.07 · 스타트업레시피 2026.09.08~09 · 이투데이 2026.09.09 ·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·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(IP-Market) 공개자료 · 랩 위드 내부 정리 (2026.09.09)

3. 실전 체크리스트

✔ **③ 실전 체크리스트 _ 기술이전(라이선스인) 준비 점검**

- ▸ 우리 회사 제품·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을 자체 개발할지, 남의 특허를 가져올지 비교해 본 적이 있다
- ▸ 국가기술은행(NTB)이나 IP-Market 에서 우리 분야 특허를 검색해 본 적이 있다

- ▸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
- ▸ 정액기술료·로열티·마일스톤 중 우리 자금 사정에 맞는 대가 지급 방식을 생각해 보았다
- ▸ 계약서에서 개량기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
- ▸ 기술이전 전담조직(대학 TLO)이나 전문 자문사와 상담해 본 적이 있다

4. 이번 주 마감임박 지원사업 (중앙정부 70% · 대전지역 30%)

- **[중앙]** 26 년 AI·스마트전자제품 금형지원 기업모집 **(~09.10)** · 창업진흥원(KISED)
- **[중앙]** 2026 년 한국공항공사 상생형 창업·벤처 기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**(~09.11)** · 창업진흥원(KISED)
- **[중앙]** 2026 년도 제 2 차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**(~09.11)** ·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(KEIT)
- **[중앙]** GITCC 유럽 제조 AI 현지 워크샵 국내 참가기업 모집 **(~09.11)** ·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
- **[중앙]** 2026 년 온디바이스 AI 제품개발·제조 및 기술지원 기업모집공고 **(~09.14)** · 창업진흥원(KISED)
- **[대전]** 2026 글로벌 R&D 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**(~09.11)** · 대전테크노파크
- **[대전]** 2026 년 베트남 호치민 K-라이프 커넥트데이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공고 **(~09.13)** ·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
※ 09.10(목)~09.16(수) 마감, 중앙 5 : 대전 2. 09.09 자 지원사업 브리핑이 아직 발행되지 않아 09.08 기준 자료로 작성했습니다. ※ 출처: 랩 위드 지원사업 브리핑 (2026.09.08 기준).

지금 우리 회사 사업 분야에 맞는 '남의 특허'가 어디에 있는지, 어떤 조건으로 들여와야 유리한지 판단이 서지 않으십니까? 국가기술은행·공공기관 보유기술 탐색부터 라이선스 계약 조건 검토까지 함께해 드립니다. → '기술이전(라이선스인) 탐색·계약 검토' 상담

상담 신청 ☎ 010-6408-8557 | antipoto@gmail.com | cafe.naver.com/techcomwith

▣ 랩 위드 컨설팅 솔루션 _ 사업화 전 단계를 전문가가 함께 설계합니다



랩 위드 AI R&D 전략 분석 플랫폼

"R&D 사업계획서, AI 로 구조화"

· 공고·RFP 분석 → 평가항목별 맞춤 전략 도출
· 정부 과제 DB 2,900+건·선행연구 검색
· 평가위원 관점 피드백으로 완성도 점검



IR 컨설팅 솔루션

"기업진단부터 모의 IR 까지 4STEP"

· 기업진단 → 투자전략 → IR Deck → 모의 IR
· 피치덱 10 장 구조·트랙션·Ask 설계
· 7 회차 온라인 관리로 단계별 코칭



기업진단 솔루션

"우리 회사 사업화 준비도 점수화"

· 기업정보·재무·기술개발·정성평가 종합
· 강·약점 종합 진단 리포트 자동 생성
· R&D·투자 준비 우선순위 제시

◆ 랩 위드 채널 _ 지금 바로 연결하세요

랩 위드는 매일 중앙정부·대전지역 12 개 기관 지원사업을 수집·분류해 고객사에 전달합니다.

브리핑·인사이트·AI 분석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연결 _ R&D·사업화 전략 수립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.

◆ [1 기 모집] R&D 실무교육 아카데미 _ 될 때까지 지원하는 실습 교육

2026. 9.17(목)~9.22(화) | 과정별 1 일 완결 | 기술사업화 랩 위드(주) 교육장(대전 중구)

- 참가자 본인이 보유한 기술로 그날 R&D 연구계획서·PSST 사업계획서·IR DECK 을 직접 완성하는 실습 과정입니다.
- R&D 평가위원이자 전문개인(엔젤)투자자인 대표이사가 직접 교육하고 지도합니다.
- IR DECK 는 블루오션벤처스 이준희 대표이사(전문개인투자자, 블루오션투자조합 사무국장)가 강의합니다.
- DAY1 · 9.17(목) R&D 연구계획서 작성 실무 _ 30 만원 | DAY2 · 9.18(금) PSST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_ 25 만원
- DAY3 · 9.21(월) PSST 기반 IR DECK 만들기 _ 25 만원 | TRACK B · 9.22(화) 계획서 진단 클리닉 _ 15 만원
- 이어지는 기수: 2 기 9.28(월)~10.2(금) · 3 기 10.13(화)~10.16(금) · 4 기 10.27(화)~11.2(월)
- 날짜별 개별 신청 가능 · 각 과정 정원 4 명 선착순 마감
- 신청: 홈페이지 www.labwith.kr 실무교육 아카데미 페이지의 달력에서 원하는 날짜를 골라 신청하십시오.
- 문의: 010-6408-8557 · antipoto@gmail.com · 카카오톡 ID antipoto

기술사업화 랩 위드
Tech-Commercialization Lab WITH

기술사업화 랩 위드(주) 조남주 대표이사 · 공학박사 · 전문개인(엔젤)투자자

☎ 010-6408-8557 | antipoto@gmail.com

대전 본사 (34897)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615 번길 56, 진호빌딩 301 호

홈페이지: www.labwith.kr 네이버 카페: cafe.naver.com/techcomwith